

신심즉생활

종교의 목적은 인간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며 불법 또한 그러한 이유로 존재한다. 보통 불교를 명상을 통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종교로 보는 경향이 많으나 이것은 결코 불교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며 현실도피는 진정한 불법의 정신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성불은 불법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초월적이고 수동적인 경애가 아니라 생명에 환희와 충실감이 넘치는 가장 가치있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SGI 에서는 ‘신심즉생활’이라고 한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서에서 신심즉생활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기도 하는데 특히 천태대사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일체세간(一切世間)의 치생산업(治生產業)은 모두 실상(實相)과 서로 위배(違背)하지 않음.”(단월모답서(檀越某答書), 1295 쪽)이라고 하셨다. 신심을 통해 불계의 경애를 용현시켜 자신의 생명내면을 단련시킬 수 있으며 그 생명력과 지혜로써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 안녕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심즉생활에서 생활이란 우리들 생명활동 그 자체이며 신심은 우리들 생명오저에 있는 생명력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신심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불계의 생명을 용현시키는 기연이 되어 자신의 생명변혁의 무대로 되는 것이다.

어성훈에 “하늘이 맑아지면 땅은 밝아지고, 법화(法華)를 이는 자(者)는 세법(世法)을 깨닫느니라.”(여래멸후오백세에 시작하는 관심의 본존초, 254 쪽) 고 있다 ‘법화경을 안다.’는 것은 용감하게 창제하고 자타의 행복을 위해 SGI 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계의 생명을 용현시켜 풍부한 생명력과 지혜를 가지게 된다.

한 학자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학회에 끌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SGI 는 불도수행을 통해 각자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점을 들었다. 이것은 대성인이 불법교리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써 현증을 드는 것과도 일치하는데 어성훈에 “일체는 현증을 따를 것이 없으니.”(교행증어서, 1279 쪽)라고도 하셨다.

매달 학회의 좌담회는 회원들이 신심을 통해서 얻은 체험담을 발표하고 진진과 성장을 위해 즐겁고 새롭게 결의하는 곳이다.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창가학회 초대회장은 세계 제2 차 대전 이전에 이미 좌담회 형식을 만드셨고 좌담회를 ‘대선(大善) 생활 실험증명 좌담회’(법화경의 지혜 2 권, 136 쪽)의 현장이라고 하셨다. 신심의 체험담을 듣고 발표함으로써 불도수행이 얼마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지 알 수 있으며 또한 강한 신심의 결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좌담회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불법의 목적을 확인해주는 토론회인 것이다.

또한, 가장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목 외에도 노력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노력없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면 종교는 마법과 같다고 하겠다. 마법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단련도 행복감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불도수행은 노력의 결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제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제목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모든 일상생활도 이와 똑같이 적용된다.

남묘호렌계교라고 부르는 제목의 힘은 무한하다.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생명력과 지혜가 솟아오른다. 이러한 생명력과 지혜로 수행하면 우리의 기원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케다 회장은 “인간의 지혜, 부처의 지혜의 최고 결정(結晶)이 본존님이다. 그러므로 이쪽이 하나의 신력, 하나의 행력이라면 하나의 불력, 하나의 법력이 되어 나타난다. 백의 신력, 행력은 백의 불력, 법력이 되어 나타난다. 만의 신력, 행력은 만의 불력, 법력이 되어 나타난다.”(청춘대화 2 권, 58 쪽) 고 하였다.

니치렌 대성인은 가마쿠라(막부의 수도)에 살며 무사였던 시조강고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나카쓰카사부로지에몬노조(시조강

고)는 주군을 위해서도 불법을 위해서도 세간에 있어서의 마음씨도 정말 좋았었다하고 가마쿠라 사람들의 입으로 칭송받게 하시라.”(스승천황어서 1173 쪽). 그 당시 깡고는 같은 무사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있어 그중 몇 명이 깡고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주군에게도 보고했다. 하지만 깡고는 대성인의 격려를 마음에 새겨 자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며 진심과 성실함으로 주군을 도왔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일을 열심히 잘 수행한 것이다.

대성인은 불법의 목적 또는 그 중요성은 부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에 있었소이다.”(스승천황어서 1174 쪽) 라고 강조하시면서 불법자로서 타인에 대한 우리들의 진심어리고 배려심 많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셨다.

결국 깡고는 주군의 신임을 얻어 영토를 더 받을 수 있었으며 현실에서 대성인 불법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것이다. 이케다 회장이 1990년 미국방문 시에, 미국 SGI 회원에게 “생활을 소중히,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의 인생을 장식해 주십시오. 신심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미국의 벗에게, 22 쪽) 라고 지도해 주셨다.

우리와 가장 밀접한 환경에 있는 가족,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는 신심과 인생에 있어서의 단련의 장(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난을 절호의 기회라 보고 제목을 통해 우리들 내면에 있는 불성을 용현시켜 사회에서 승리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신심즉생활의 원리를 환희롭게 실천하는 것이다. ■